

시온 주보

제2418호 2022년 10월 23일(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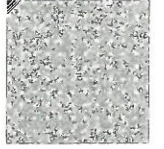
연중 제30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 전교 주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67(66), 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 1-5

화답송 | 시편 98(97), 1, 2-3, 3c, 4-5-6(◎ 2 참조 또는 3c)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 9-18

복음화송 |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 16-20

영성체송 | 마태 28, 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 해외선교봉사국장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

제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봅니다. 가난했지만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때로는 다리 아프다며 엄마 등에 업혀 성당에 오가던 시절, 꾸벅꾸벅 졸며 묵주기도 봉헌하 시던 어머니 모습, 성당 친구들과 즐거이 뛰놀던 시간들, 주 변에 늘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던 수녀님과 신부님들, 스스로 하느님 공부하며 노력했던 시간들 모두 하느님께서 제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보내 주신 천사들이었나 봅니다. 주님 없이 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주님 없으면 어찌 살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 마 10,14) 크게 작게 하느님은 항상 제 곁에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할 힘을 주셨습니다. 늘 사랑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칠레 이키케 교구에서 선교사로 살던 때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60여 세 되어 보이는 소위 술주정뱅이가 사제관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슬그머니 나가보니 이 형제가 술 기운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다리도 아프고 출기까지 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춥습니다. 우리는 쪼그려 앉아서 계속 대화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니 이 친구가 큰 소리로 하하하 웃으며 저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처음으로 주님의 천사를 이곳에서 보았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 형제의 말을 세 시간 동안 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러나 구걸한다고 더럽다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

지 않았던 이 형제의 눈에는 제가 천사로 보였나 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계시고 늘 내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시어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믿음과 인내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에 동참합니다.

현재 전쟁과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3개국에서 천 명이 넘는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난한 지역에서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한 번만이라도 바쳐주시고, 하느님 나라, 복음은 세상 끝까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집집마다 세상 끝까지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마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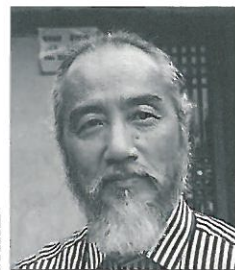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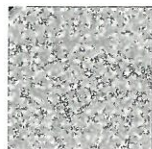
이스라엘 타보르산 거룩한 변모성당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거룩한 타보르산 정상, 거룩한 변모 성당 제대의 모자이크 천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전교 주일이며 민족들의 복음화 주일인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사 때 파견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주례 사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듣던 말씀이 오늘은 새롭게 다가오며 위로를 받습니다.

김문숙 요셉녀 | 가톨릭사진가회





김세원 안셀모 | 울산대 미술학부 교수

관광지가 된 옛 성당들

10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성당들을 사진에 담다 보니 간혹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그 중 어느 성당이 가장 아름답냐고 묻곤 합니다. 저는 모든 성당이 다 아름답다고 답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옛 성당들은 모두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아파트나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옛 성당의 고풍스러운 이미지는 물론이요, 종탑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누구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꺼내 셔터를 누르게 만듭니다. 요즘은 일부러 찾아가서 추억 만들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포토존이 되어버린 성당들이 많습니다.

명동대성당은 1년 내내 관광객들로 붐비는 대표적인 성당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하거니와 한국 천주교회가 태동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성당이다 보니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북적입니다. 조선대목구 7대 교구장인 블랑(Marie Jean Gustave Blanc) 주교님은 조선 정부가 제기한 토지 문제로 성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성당 설계자인 코스트(Eugene-Jean George Coste) 신부님은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선종하셨죠. 공사 중에 종탑이 무너져 내리는 등 난제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축성식에는 3,000여 명이나 몰렸다고 하니 당시에도 대단한 건축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전주 한옥 마을 내에 있는 전동성당 역시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동성당 신축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지충(바오로)과 권상연(아고보)이 순교한 자리에 보두네(Francois Xavier Baudounet) 신부님이 성당 신축을 시작했는데, 건축 비용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지만 자금을 도난당했고, 본당 회장의 도박 사건 등으로 공사가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두네 신부님 역시 성전 외형만 건립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선 풍수원성당도 어려움이 이에 못지않았습니다. 풍수원 신자들은 벽돌을 이고 나르느라 정수리의 머리가 다 빠졌다고 하고, 전동성당 신자들은 밥술을 들고 와 밥을 해 먹으며 성당 건축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들은 사제와 신자들의 열정과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기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당 앞에 서서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남깁니다. 깔깔깔 웃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브이 지를 그리며 김치, 치즈를 연발합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무대가 된 성당들은 더 심하죠. 하지만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앞에서 사진만 찍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본당이 하느님께 어떻게 봉헌되었는지 한 번쯤 기도 속에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도 출사에 앞서 이 나라에 성전을 세우신 신앙 선조들에게 기도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피가 저희를 함박 웃음 짓게 만드셨나이다.”

한컷 묵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5

한국교회의 수호자 - 마리아와 요셉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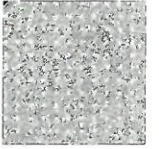
예수님 당시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부부가 됩니다. 양가 부모는 어린 두 아이의 혼인을 약속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 정혼합니다. 어릴 때 약혼했더라도 이때 파혼이 가능합니다. 결혼 의사를 밝히면 1년 정도 정혼 단계를 밟게 되고, 이때 서로 남편 혹은 아내라 부르지만, 함께 살지 않습니다. 다음이 결혼 단계이고, 이때부터 한집에서 삽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단계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마태 1,19)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합니다. 자기 약혼녀가 성령으로 인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요셉은 온전히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요셉은 하느님 뜻이라 확신했기에 하느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의로운 요셉’, 성경에서 ‘의로운’이란 단어는 하느님 말씀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기인하고, 믿음을 통해 얻은 의로움입니다. 요셉의 의로운 행동은 구원역사와 성가정의 바탕이 되었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12월 8일은 150년 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의 배필인 성 요셉을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한 날이고, 또한 한국 천주교회에도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한국 천주교회 수

호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 속했기에 북경교구 수호성인인 성 요셉을 조선교구 수호자로 모셔왔습니다. 조선 제2대 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1838년 교황청 포교성성(현 ‘복음화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교구의 새로운 수호자로 ‘성모무염시잉모태(聖母無染始孕母胎,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를 정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국 1841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이 요청을 허락하며 성 요셉 역시 수호자로 모실 것을 조건으로 붙였고, 한국 교회 수호자는 두 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달력에는 12월 8일을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 표기해 놓았지만, 3월 19일은 ‘성 요셉 대축일’이라고만 써놓았습니다. 이유는 교황청 경신성사성(현 ‘경신성사부’)이 각 나라 교회는 한 분의 수호성인만 모시도록 권했기에, 2015년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만 한국 교회 수호성인으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요셉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마리아의 순결을 흠없이 보호했고 성가정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감탄할 만한 협력과 ‘침묵’으로 하느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요셉의 의로운 삶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구했고, 어린 아들 예수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셨으며, 아버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표상을 오롯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노동자의 수호자이자 세계 교회의 수호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시노드 문서를 읽는 방법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교구종합문서(Diocesan Synthesis Document)

하느님 백성이 함께 나아가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 하느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듯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령 안에서 식별하며 시노달리타스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하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말하고 들은 것을 식별하고 종합하여 글로 쓰고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공유(유희) 하면서 다시 확장시키고 성장하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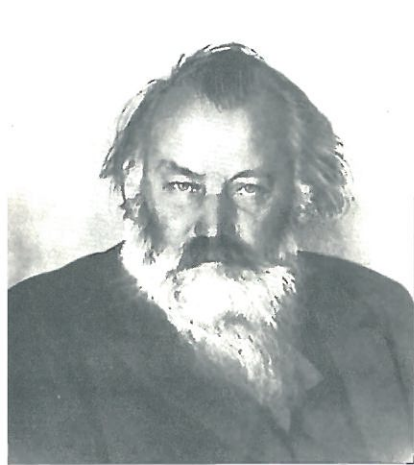
이 시노달리타스 과정을 통하여 여러 단계의 문서가 생성됩니다. 교구 단계에서 작성된 최종 문서를 교구종합문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가 중요한 것은 하느님 백성들이 제안한 내용과는 별개로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그 제안을 종합한 문서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곧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인 만큼, 이 문서를 읽고 나누는 것 또한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위해 작성된 문서를 함께 읽고 나누지 않는다면 이번 시노드는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시노드 문서를 읽는 방법

교구종합문서를 작성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위해 개최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과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진행된 합

계 나아가는 교회의 여정을 하느님 백성 모두와 공유함으로써 하느님 백성 전체가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이 경험을 심화하고 확장하도록 도모합니다. 이는 시노드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시노드 여정의 결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구종합문서를 읽을 때 다음의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시노드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준비되고 실시되었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귀 기울여 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노드 여정을 통해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 안에 담겨진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제안했던 내용이 문서 안에 잘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 안에서 울려 퍼진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교구는 어떻게 식별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문서가 세계주교시노드 여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문서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우리 교구가 어떻게 심화시키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구단계 시노달리타스 여정은 기한이나 문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문서를 다시 함께 새롭게 읽고 심화시키는 여정으로 이어지며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을과 클라리넷 브람스 〈클라리넷 오중주곡〉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음악사 대도감)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2006년 일본의 유명 온천지 구사쓰(草津)에서 열린 ‘국제 음악 아카데미 & 페스티벌’을 취재했습니다. 그때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석 연주자면서 독주자로 활동하는 카를 라이스터(Karl Leister, 독일)를 인터뷰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클라리넷 작품 세 개를 꼽아달라고 했죠. 그는 모차르트의 협주곡과 브람스의 오중주곡, 레거(Max Reger, 1873~1916, 독일)의 오중주곡을 꼽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세 작품 모두 작곡가가 그 곡을 쓴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니, 모차르트, 브람스, 레거는 세상의 마지막을 클라리넷과 함께 한 거라면서, 클라리넷을 ‘죽음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만년에 아름다운 클라리넷 작품을 쓴 이유를 이 악기가 ‘가을의 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클라리넷은 아주 많은 색채를 가진 악기인데, 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소리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낙엽이 떨어질 때의 느낌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듣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라이스터 연주자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저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작곡가의 작품에 대해 공부하고 연주한 대가(大家)의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곡에서는 인생의 황혼, 가을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지만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전통에 기반한 작품을 유지했던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독일)는 자신과 맺어진 인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

아가신 후에도 새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자신을 처음 음악계에 소개해 준 선배 작곡가 슈만이 정신 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슈만 집안을 끝까지 돌봅니다. 특히 슈만의 부인 클라와의 관계는 애정이나, 존경이나를 두고 술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남다른 것이었지요.

브람스는 선일곱 살이던 1890년 현악 오중주곡 작품번호(op.) 111을 작곡했는데, 이 곡을 매우 힘들게 완성한 모양입니다. 기진하여 당분간 작곡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지요. 하지만 이듬해 3월, 마이닝겐에서 리하르트 뭉펠트(R. Mühlfeld, 1856~1907)라는 뛰어난 클라리네티스트의 연주를 듣고는 창작력을 회복합니다. 이전에 비해 음역이 넓어지고 음색이 다채로워진 클라리넷의 새로운 음색에 매료된 거죠. 그리고 이 개량된 클라리넷의 특징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곡을 네 곡이나 집중적으로 씁니다. 클라리넷 삼중주곡과 오중주곡을 1891년에, 두 곡의 클라리넷 소나타를 1894년에 작곡합니다.

클라리넷 오중주곡은 클라리넷과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편성으로, 네 악장으로 구성됐으며 연주 시간 약 35분가량의 묵직한 곡입니다.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피지만 정작 본인은 고독하고 때때로 비탄에 잠기고 체념에 빠졌을 브람스의 인간적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중후하면서도 아름답고 따뜻하며 애절한 브람스의 음악이 이 가을 우리에게 든든한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카를 라이스터(클라리넷)
& 아마테우스 현악4중주단

전교 주일 편

#교황청_전교기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특별기획_미션



김광두 교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6차 전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황청 복음화부가 설립된 지 400주년, 복자 폴린 마리 자리코가 프랑스 리옹에서 전교회를 설립한 지 200주년, 전교회가 교황청 산하 기구가 되어 교황청 전교기구가 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전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참조)라고 당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올해 전교주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의 교회 메시지에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전교 주일의 주관 부서인 교황청 전교기구의 설립자 복자 폴린 마리 자리코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선교사의 마음’(Heart of a Missionary)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폴린이 전교회를 설립한 1822년은 프랑스 대혁명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에 프랑스 교회는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녀가 전교회를 설립하여 교회의 선교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담아낸 영상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전해진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파견할 때 오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선교회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한국에 진출한 여러 선교회 가운데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올 초에 있었던 해외 선교사 교육의 파견 미사 가운데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님의 강론 말씀이 전교주일을 맞아 우리의 선교 사명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 소개해 드립니다.

몇 년 전에 가톨릭평화방송 TV에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미션”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살아가고 계신 외국인 선교사들과 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살아가고 계신 한국인 선교사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상을 2015년 해외선교의 날을 맞아 20여 분 분량으로 요약 편집한 “기쁨을 누리는 선교사”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cpbcTV가톨릭콘텐츠의 모든것’ 채널에서 “특별기획 미션”을 검색해 보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선교 사명이 되새기며 오늘도 타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특별기획



→ 선교사의 마음 Heart of a Missionary - The Story of Pauline Jaricot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 27차 해외선교사교육 파견미사 한정현 주교 강론 골롬반TV_성골롬반외방선교회



→ 기쁨을 누리는 선교사 _ ‘특별기획 미션’ 요약 - cpbcTV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 전교주일 담화문 서울주보 홈페이지



오늘(10월 23일)은 '전교 주일'로 선교 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 주일 특별 헌금은 '교황청'에 보내져 전 세계 선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데 쓰입니다. 전교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 28일(금)은 교구청 직원 야유회로 교구청 모든 부서 휴무입니다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알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곳: 10월24일(월) 10시30분, 양천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수업'

주제: 내가 모르는 나를 만나다
때: 10월26일~2023년 1월25일 매주(수)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0월27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문의: 02)921-5093

2023년 월요성경 회원 모집(사목국)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 조창수 신부
때: 2023년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52주 / 90분 강의, 미사) 온라인 동시 강의
곳: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회비: 연회비 12만원 / 인원: 500명
문의: 010-7586-5425 문자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강연회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관련하여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탈시설화와 최종중고령 요양돌봄 서비스
강사: 임상용 수사(작은형제회, 발달장애인 시설 애지람)
때: 11월4일(금) 오전 10시30분
곳: 천주교서울대교구청 5층 501호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학술 심포지엄

주제: 시노달리타스 '제 3천년기 교회의 길'
때, 곳: 11월5일(토) 10시~18시, 명동대성당 포스트 홀 / 주최: 신학과 사상학회, 통합사목연구소
문의: 02)740-9731 신학과 사상학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곳: 11월3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 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2022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한마당잔치

때: 10월30일(일) 9시30분~16시
곳: 명동대성당, 앞마당, 성모동산, 가톨릭회관 앞마당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
내용: 12시-가을걷이 감사미사(유경춘 주교 주례, 각 교구 우리농 본부장단,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제단 공동집전), 9시30분~16시-우리농산물 직거래 나눔 장터, 전시마당, 문화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리마당 등
문의: 02)2068-7066, 3766(wm.or.kr) 서울우리농본부

2022 서울역사유산체험 및 문화한마당 '시월애전(詩月愛調)'

대상: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사전 신청자에 한함(무료 공연) / 내용: 사랑과 명상 특강, 시 토크쇼(정호승과 안치환), 문화한마당(강신옥, 에스투스 등)
때: 10월29일(토) 10시~17시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홀
문의(신청): 02)727-2078 서울시교우협의회,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 참가신청 사이트(<https://naver.me/GCu4FaE1>)

천주교 서울관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팔리움 수여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2년 6월 29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 팔리움을 수여하셨습니다. 이에 주교님들과 관구 내 교구민들이 함께하는 팔리움 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때, 곳: 11월 7일(월) 오후 6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94년 10월 26일 구천우 요셉 신부(97세)
- 2021년 10월 28일 경갑실 사도요한 신부(72세)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1월10일부터 매주(목)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혜선 개인전: 1전시실
전시일정: 10월26일(수)~31일(월)
포토아이스 제10회 정기전: 2전시실
전시일정: 10월26일(수)~11월7일(월)
인천가대 그리스도교미술연구소 황금채색 세밀화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26일(수)~31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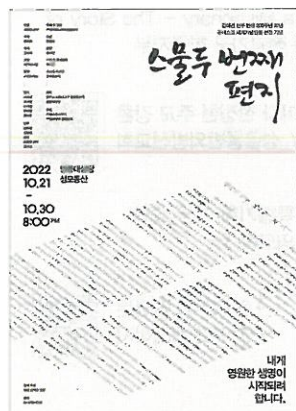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념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41차 미사 10월2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숙천 본당, 순천 본당
때, 곳: 1342차 미사 11월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안주 본당, 정주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념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10월24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비고
11월1일(화)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당고개순교성지)	3코스 일부구간 순례 포함 / 전구간 도보이동
11월12일(토) 오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 (예고개성지~삼성산성지)	성지 순서 변경하여 순례 일부구간 대중교통 이용
11월15일(화) 오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 (예고개성지~삼성산성지)	성지 순서 변경하여 순례 일부구간 대중교통 이용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화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공연

스물두 번째 편지

10.21 - 10.30

8:00 PM

명동대성당 성모동산



김대건 신부님은 간절히 바라고 믿었던 하느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역경에 당당히 맞선 신념과 용기의 사람입니다. 신부님의 편지를 따라 걷노라면 굳건한 신앙과 뜨거운 사랑으로 펄펄 살아 뛰었던 스물다섯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전석 무료, 당일 선착순 입장) ✨ 아의 공연 특성상 공연 관람 시 추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때: 11월1일~30일 /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한 분
문의: 010-9148-7970 주간, 010-8874-7970 야간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10월25일(화) 12시30분(강의·성시간)~15시(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1)707-4450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 / 문의: 010-7197-1390

때: 10월26일(수) 19시30분 / 대상: 만 35세 이하 청년
곳: 착한목자수녀회(주최, 전철 2·7호선 건대입구역)

돌아보며 깨닫기

혼인 성소 찾기 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유튜브: 돌개TV
영성 심리상담 / 문의(예약): 010-3173-2665

노틀담 청년 기도모임(그해, 19~45)

때, 곳: 11월12일(토) 17시~18시30분, 노틀담수녀원
(인천 계산동) / 대상: 19세~45세 청년 선착순 20명
문의: 010-3930-6730 노틀담 수녀회

올리베라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해바라기 가을 피정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 접수: 11월6일(일)까지
때: 11월12일(토) 16시~13일(일) 16시
곳: 성분도 은혜의 집(부산) / 문의: 010-4648-7522

1박2일 무료 치유 피정(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때, 곳: 11월4일(금) 18시~5일(토) 15시(파견 미사),
청주교구 조정성령회관 / 버스운행: 17시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17시20분 청주고속터미널 앞(다이소)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대구·부산·마산교구 순례·왜관 수도원 전례·탐방

때, 곳: 12월3일~5일(대구 17곳)·12월16일~19일(부산 8
곳~마산 6곳)·2023년 2월18일~20일(대구 17곳)·3월1일
~5일(대구~울릉도 포함) / 출발: 서울 명동(대행버스)
문의: 010-3807-1784 왜관 수도원 피정의 집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2월3일~5일, 12월9일~11일, 12월16일~18일
연말 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8차	11월11일(금)~19일(토)	문의:
제109차	12월2일(금)~10일(토)	061)373-3001,
제110차	12월30일(금)~2023년 1월7일(토)	010-3540-9001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프라도수녀회 젊은이 만남

때: 11월6일 14시~18시 / 대상: 40세 미만 남녀
곳: 프라도수녀회 본원(구로구 고척로 52길 68-6)
미사 있음 / 문의: 010-2205-1856, 010-2976-1856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1월4일~7일·11월18일~21·12월2일~5일
·12월16일~19일·2023년 1월6일~9일·1월27일
~30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시간·미사

때, 곳: 매주(목) 23시20분~24시50분, 미리내성
지 켓세마니 동산(우천시 103위 시청기념 성당)
성시간 순서: ① 성심의 메시지, ② 양팔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③ 성시간 미사 / 문의: 031)674-1251
지향: ① 세계평화, ② 교회일치, ③ 죄인회개, ④ 성직
자·수도자 성화, ⑤ 낙태죄 배상, ⑥ 한반도 평화통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10월29일~31일·11월15일~17일·11월21일
~23일·11월26일~28일·12월2일~4일·12월31일
~2023년 1월2일(한라산 눈꽃 피정)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10월 가정선교회 행사 부부나들이 피정

때, 곳: 10월29일(토) 14시~30일(일) 17시, 성라자로마
을 아론의집 본관 / 한철호 신부, 최황진 신부, 이현
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 20만원 / 계좌: 신협 131-020-141399
(재)천주교서울대교구(가정선교회)
준비물: 개인컵(필수), 운동화, 수건, 세면도구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때: 10월31일~12월5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2)756-3473, 010-
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0월31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죽음 1	박 실비아 수녀
11월7일(월)	세속정신 죽음 2	조용준 신부
11월14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김경진 신부
11월21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이병근 신부
11월28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박상희 신부
12월5일(월)	성모님께의 봉헌식 미사	

예수수도회 11월 피정

곳: 메리워드 센터(서울 오류동)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피정	11월5일(토)~6일(일) 대상: 미혼인 딸	문의: 010- 2314-1645
청년 주말 피정	11월12일(토)~13일(일) 35세 미만 미혼 여성	카카오톡 채널: 빛더하기_ 예수수도회
생활 일상 삶 안에서 영성순례 피정	12주간 / 45세 미만 미혼 여성	
2박3일 침묵 피정	11월25일(금)~27일(일) / 010-9608-0208	

교육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

카페: cafe.naver.com/cmc04
문의: 010-5234-5044 가톨릭목공예

미사반주자 교육(9강동지우로간교육연구소)

곳: 천호동성당 내 / 문의: 010-3203-8183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blog.naver.com/pc21s / 문의: 010-5313-6554(문자)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가톨릭노동장년회 품물모임 '품울림'

생활 스트레스, 품물로 날리자
때, 곳: 매주(수)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5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 할인(전화 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성음악클래식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
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타로(지도: 김정희 신부)

'오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11월8일~29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
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가톨릭상지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11월7일~21일 / 입학문의: 054)851-
3021(www.csj.ac.kr) 입학홍보처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 성체조배 영성학교

강사: 홍성남, 배경민, 김태홍, 고준석, 임승철 신부
때: 10월26일~11월23일 매주(수) 14시~16시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4만원
문의: 02)773-3030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3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
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5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7일(월)~18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제21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3주)	미국 LA 영어캠프3인 1실 기숙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니언,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등 명문대 재학생 간담회
몰타 (3주)	국내 유일 몰타 영어캠프(2인 1실 대학기숙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유럽 3개국 투어, 파 리 디즈니랜드, 로마 바티칸, 마드리드
사이판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2~3인 1실 리조트) 명문 대 선생님 수학수업, 다양한 액티비티와 현지 투어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7기 개강 3주차

때: 9월26일(월) 10시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2023년 전기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문화영성학과(석사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10월31일(월)~11월13일(월) / 면접: 11월25일(금) 예정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문의: 02)3147-8787(<http://gcs.catholic.ac.kr>)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7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월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chool.kr>

2023년 전기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중독 포함), 노인복지학과(장기요양 포함), 정신건강복지학과(발달장애 포함)
접수: 10월31일(월)~11월13일(월) / 면접: 11월25일(금) 예정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문의: 02)3147-8781(<https://welfare.catholic.ac.kr>)

모집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접수: 11월30일까지 / 문의: 010-2657-0951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0월26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10월24일(월) 11시,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10월27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0월25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10월31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10월28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홍제동성당 주일 밤미사 시작 안내

미사: (일) 21시 / 고해성사: 8시30분부터
곳: 전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 국민은행 건물
보고 우회전 / 문의: 02)396-7771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10월23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10월 영화 치유 미사·제9회 가톨릭영화제

1) 10월 영화 치유 미사
때, 곳: 10월26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회비 없음)
2) 제9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27일(목)~30일(일), 대한극장
무료 현장 발권(자율기부제) / 문의: 0507-1424-0712(caff.kr)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0월24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채플
주례: 박진호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고준석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인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성체유치원 졸업생(1회~48회) 초대합니다

때, 곳: 10월29일(토) 10시~14시, 성체유치원
10월17일~25일(전화 접수) / 02)993-7411, 010-9355-7411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벚'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전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심리상담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나의 인생이야기-전생애 발달심리학	11월18일~12월16일
의 이해와 증년기(과거·현재·미래)	매주(금) 10시~12시(5주)

유관단체 알림

햇살사목센터 후원회 미사

지향: 후원자와 그 가정, 자녀, 손자녀를 위한 미사
때, 곳: 매월 첫번째(토) 11월5일 오후 3시, 햇살 사목센터(혜화로2길20) / 문의: 02)744-0840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서울대교구 성 임베르 센터 직원 모집

분야: 별정직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 조리업무 등 제반업무 가능한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r@seoul.catholic.kr) 접수

제기동성당 방호원(관리인) 모집 / 문의: 02)921-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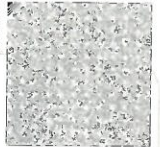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신 건강한 분(연령 무관) / 업무: 미화, 방호, 시설관리 등(시설 관련 면허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1월4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2476,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사로 31 제기동성당) 및 이메일(jegidongsd@catholic.or.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임사동) 시설관리 직원 모집

분야: 시설관리장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가능한 분(기계설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1월6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11월6일(일)	수녀원(명창동)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11월6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알프레도 트라디고 지음
이콘
그리고 동방의 얼굴들
미와 빛의 신학

신간

이콘

그리고 동방의 얼굴들
미와 빛의 신학

알프레도 트라디고 지음
기쁜소식 | 448쪽 | 10만원
문의: 02)762-1194

이콘은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성화이지만, 근본적인 진실 안에서 참된 가톨릭 신앙과도 일치한다.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이콘과 그에 대한 설명은 이콘의 기본을 알게됨과 동시에 일반적인 성미술의 모든 이미지를 읽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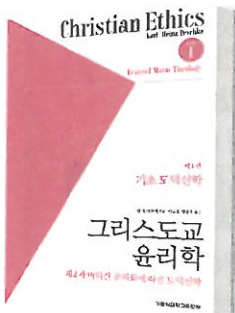


신간

리처드 로어
목상 선집

리처드 로어 지음
분도출판사 | 480쪽 | 2만9천원
문의: 02)2266-3605

이 시대의 뛰어난 영성가 리처드 로어 신부가 그동안 발표한 책과 강연을 비롯한 온갖 자료를 간추리고 선별하여 엮어낸 목상집이다. 이 책은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 이들에게 탁월한 기도 자료를 제공하며 열린 마음으로 본성을 변화하는 영성을 찾아 나서도록 도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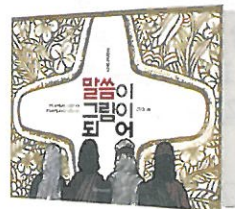


신간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권
기초 도덕신학

칼 H. 페슈케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510쪽 | 2만7천원
문의: 02)740-9718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성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에 관심 있는 이들 모두를 위해 저술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도와 줄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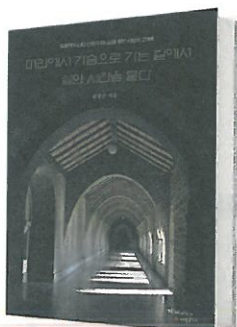


신간

말씀이 그림이 되어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 지음
돌솥날숨(분도출판사) | 116쪽 | 1만6천원
문의: 02)2266-3605

공소 사목지로 주보를 대신했던 안동교구는 2019년부터 교구 주보인 '가톨릭 안동'을 발행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김만용 작가가 매 주 복음을 묵상하며 그린 성화 52점과 안동교구 신부의 강론을 요약한 묵상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신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에서
삶의 시간을 묻다

유종만 지음
하느바람에영글다 | 432쪽 | 2만원
문의: 010-2306-9273

피조물들이 감추고 있는 아름다움과 신비를 뷰파인더로 찾아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진 찍는 신부의 33년 사목 생활이 생생히 살아 있는 책이다. 사진작가로서 음악가로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달란트를 하나씩 펼쳐가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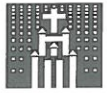
영화제

제9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 27일(목)~30일(주일), 충무로 대
한극장 / 문의: 0507-1424-0712(caff.kr) 가
톨릭영화인협회(무료 현장 발권/자율 기부제)

가톨릭영화제는 매년 시대와 영화제의 지향을 아우르는 주제를 선정, 단편 영화를 공모하고 본선 진출작 상영 후 시상하며, 영화제 주제에 부합하는 장·단편 영화를 초청하여 상영한다. 이번 주제는 '회복을 위한 동행'이다.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영화를 통해 이웃과 사회, 자연과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일상적인 삶의 긍정과 희망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제2251(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8733-651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견진성사 안내

견진성사 : 12월 3일(토) 오후 3시

교리일정 : 11월 1일(화) ~ 11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대상자 : 세례받은 만 12세 이상 및 교리강의에
참석을 원하는 모든 신자

신청기한 : 10월 23일(주일)까지

강사 : 성바오로딸 교리교육팀 수녀님

※참고도서 :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예절연습 : 11월 29일(화) 마지막 강의 후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02.323.4450)

※ 청소년 견진교리는 중고등부 교리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 (시작일 10월 23일 오늘).

◎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수)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0시 (합동위령미사)

*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11월 5일(토) 오전 10시

◎ 입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11월 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2023년 본당 봉사자 워크샵

일시 : 11월 6일(주일) 낮 12시~

장소 : 대성전 및 교육관

대상자 : 사목회, 구역장, 단체장 및 대표

◎ 유아세례 : 11월 6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청년음악회 (Re)

일시 : 11월 19일(토) 오후 6시 / 대성전

구성 : 1부 임마누엘 홀리챔버 합주단 /

2부 한푸름성가대 / 3부 이레밴드

관람 : 누구나 선착순 무료 입장

* 이 날 오후 3시 미사는 지하소성전에서 드립니다.

* 이 날 오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성모마리아의 정신인 기도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정영희 안나 (010-5006-1158)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김순교 안젤라 (010-2223-1345)

◎ 오늘은 경향잡지 홍보가 있습니다.

※ 신앙인의 백년지기 「경향잡지」를 각 가정과 이웃에!

오늘 미사 중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
협의회에서 발행하는 「경향잡지」 홍보가 있습니다.1906년에 창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경향잡지」를 각 가정에서 구독하고, 이웃에게도 선물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합시다.

◎ 오늘은 전교주일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0. 1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9	862 (41.1%)	823 (39.2%)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익 명일십만원 누 계73,113,300원

◎ 연령회 감사현금

고 김영태 바오로 상가삼십만원

◎ 감사현금 (10월 10일~16일)

진영문일십만원 진현주오만원

진현수오만원 강영자일십만원

서진영오만원 유정환삼십만원

홍선호오만원 박현경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29주일)

교무금.....6,189,000원

주일현금.....5,078,95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현금.....1,718,000원

입당	23	봉헌	210, 340	성체	502, 162	파견	63
----	----	----	----------	----	----------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